

2008년 5월 30일 메시지

- 설교할 때 천천히 잘 전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전하는 사람이 빨리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목회자들에게 다 맡겼으니 잘 해보도록 하십시오.

- 설교는 자꾸 해보면 됩니다. 자꾸 해보면 유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처음에 한 명으로 해서 세계 50개국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한 명이 많은 것입니다. 한 명 할 줄 모르면 열 명도 못하고 만 명도 못하고 다 못하는 것입니다. 한 명 할 줄 알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 명이고 일억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초근초근 해나가면 됩니다. 목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로 양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라 똑같은 것이고, 농사짓는 사람은 곡식 가꾸는 것과 같고 산에 나무 가꾸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걸 먼저 해보고 하면 다 목회 할 수 있습니다. 유능하게 해보고 해야지 보통해보고 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 온 사람들은 처음 온 애들이라 나이가 많은 적든 처음에 말을 잘 듣습니다.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그런 사람만 집중하다보면 초신앙자는 늘어나는데 빠다귀가 없는 것입니다. 빠대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래된 사람들 말 안 듣고 잘 안 나오는 사람들 자꾸 심방도 해주고 그래야 목회를 잘 하는 것입니다.

- 내가 외국에서 화면으로 얼굴만 본 사람들은 얼굴만 알지 그 사람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내가 기도하는 해주고 있으니 애들 잘 나오도록 해주고 신경써줘야 합니다. 그런 사람 다시 전도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 집중해서 신경 써서 관리해주어야 합니다. 목회는 두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람 관리하고 이제 온 사람 관리하고 이 두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이걸 못하면 물건을 계속 주워 담는데도 집에 와 보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켓이 찢어져서 다 새나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는 30년 동안 세계적으로 청중을 끌고 왔기에 전부 다 압니다. 그러니 이런 걸 잘 듣고 새겨서 일 하도록 하십시오. 계속 지켜 볼 것입니다.

- 체육이나 예술하는 사람들 관리 잘 해서 거기에만 빠지지 말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늘을 사랑하며 그 주권을 따라서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기본이 없이는 체육이나 예술이나 하면 안 됩니다. 이 기본이 없으면 육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시대

가 발달 되어서 지금은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지만 사실 상 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체육이나 예술에 상관없이 말씀 전하고 가셨습니다. 책임자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운동이나 예술에 빠져서 다른 곳으로 빠지지 못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시대에 발맞춰 가야 하긴 하지만 신앙을 그 근본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항상 시대에 따라서 먹고 살기 위해 사업도 하지만 단체를 업고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단체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을 잘 신경 써서 해나가도록 하고, 나이가 40, 50이 되어도 항상 무엇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성경을 2천 번이나 읽으면서 청중을 지도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봅니다. 그냥 쳐다보면 다 압니다. 책을 수 천 번 읽은 사람은 나중에 책 제목만 봐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는 것처럼 다 압니다.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항상 교인들 데리고 사업한다 뭐한다 하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늘 위해 살겠다 맹세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시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교역자 통해 말씀이 막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걸 잘 하도록 하고 흔히 보면 내 이름 대면서 사업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꾸 그러면 선생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 와서 나에게 자꾸 묻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고. 나는 전혀 모릅니다. 사업을 해본적도 없고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모릅니다. 설교 나가면 모두 다 그런 말씀 깨닫고 잘 하도록 하십시오. 애들도 잘 해주고 책임감있게 돌봐줘야 합니다. 요새 경제적으로도 부도도 나고 하니까 잘 하도록 하고 자꾸 단체를 이용해서 하지 말도록 하십시오. 내가 다 압니다. 사람이 머리 깎았는지 안 깎았는지 쳐다보면 알듯이 옷도 어떤 색깔 옷을 입었는지 쳐다보면 알듯이 다 압니다. 이런 것을 잘 해서 나가야 합니다. 돈도 투명하게 쓰도록 하고 누가 돈 걷는다 하면 그런 말에 솔깃 해하지 말고 거기 절대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돈 받아서 섭리위해 썼다 어쨌다 하면 안 되니까 현금할 사람은 정확하게 하고 현금할 돈 없으면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것 아닙니까? 한 8년 만에 와보니까 애들이 전부 성격들이 달라진 게 너무 많아져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책임지고 해줘야 합니다.

- 이리저리 잘못 지도하면 안 됩니다. 섭리 안에서도 뭐 한다 뭐한다 하는데 그거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일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 하게

나뒤편에 합시다4792. 나두면 목회 열심히 할 사람들
인데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괜히 뭐한다고 하지 마
십시오.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는 사람들 만날 시간
도 없고 내 일 하기도 지금 바쁩니다. 15년씩 20년
씩 나를 못 본 사람도 많지만 나는 사람 보러 온 사
람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 책임을 지고 열심히 잘
해나가도록 하십시오.

- 목회 할 사람 목회 하는데 내려 보내고 괜히 뭐한
다 뭐한다 하지 말고 말도 조심해서 잘 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이 말하면 저 말하니까 조심해서 말해
야 됩니다.